



OECD 주요 국가의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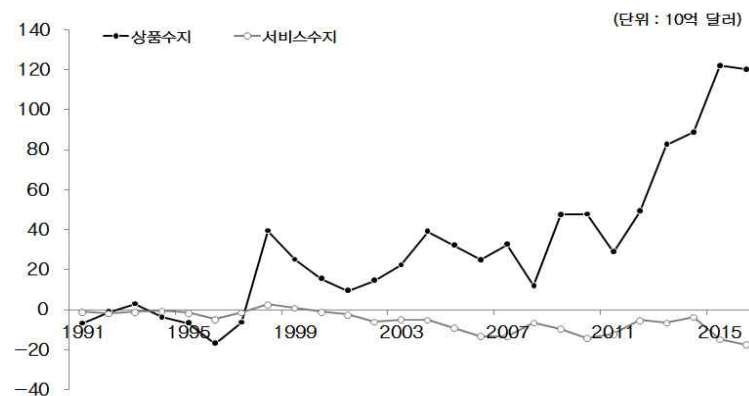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OECD 주요 국가의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됨. 첫째, 일반적으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간에는 음(-)의 관계가 나타남. 서비스수지가 적자(흑자)인 국가는 대부분 상품수지가 흑자(적자)임. 예를 들면, 일본, 독일, 우리나라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는 상품수지가 흑자인 반면 서비스수지가 적자이고, 이와 반대로 미국, 영국 등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국가는 상품수지가 적자이나 서비스수지가 흑자임. 둘째,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경우 적자 또는 흑자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국제적 추이와 우리나라의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5일 발표한 2017년 10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10월 서비스수지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35억 3천만 달러(이전 최대 규모는 2017년 1월 33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 서비스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여행수지 적자에서 발생하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중 여행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났음
 -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해외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 서비스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인 현상인데,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서비스수지는 1991년 이후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과 199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상품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
 -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임
 - 1990년대 초반까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비슷하였으나 이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¹⁾

- OECD(2016) 보고서(Going for Growth)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45% 수준으로 OECD 26개국 중 최하위임
-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미국 대비 80.8%, 일본의 118.3%로 높은 편이나, 서비스업은 미국 대비 48.8%, 일본의 66.7%로 크게 낮은 수준임²⁾
- 한편, 2013년 기준으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이 OECD 24개국 중 11위, 서비스업은 21위로 나타남³⁾

〈그림 1〉 우리나라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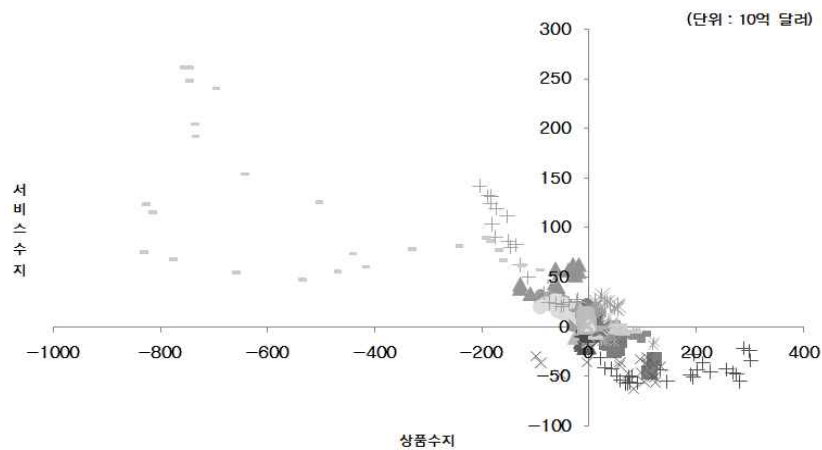


자료: BIS database

- 본고는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OECD 국가(체제전환국 제외)의 서비스수지 및 상품수지 추이를 살펴보고,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함
- 첫째, 일반적으로 상품수지가 흑자(적자)인 국가는 서비스수지가 적자(흑자)인 모습이 관찰되는 등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간에는 음(-)의 관계가 나타남
 - 〈그림 2〉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OECD 주요국의 연도별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산포도(분산도)를 보여주는데,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집중되어 있음
 - 예를 들어, 몇 개 주요 국가를 살펴보다도 독일, 일본, 아일랜드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의 경우(〈그림 3〉 참조) 서비스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국가(〈그림 4〉 참조)는 서비스수지가 만성적인 흑자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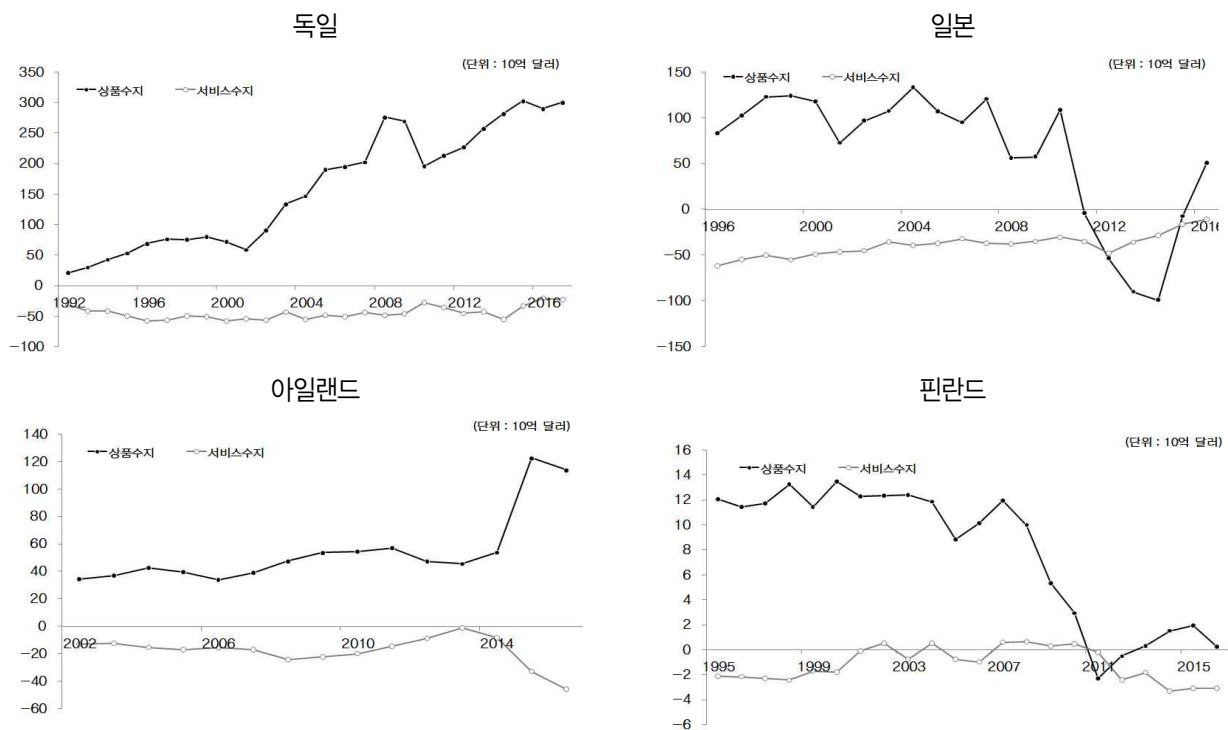
1) 이흥직·장준영(2007), 「산업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 원인과 경제적 영향 분석」, 『조사통계월보』, 7월호, 한국은행
 2) 한국생산성본부(2015), 「2015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3) 한국생산성본부(2015), 「2015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그림 2〉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와의 관계(199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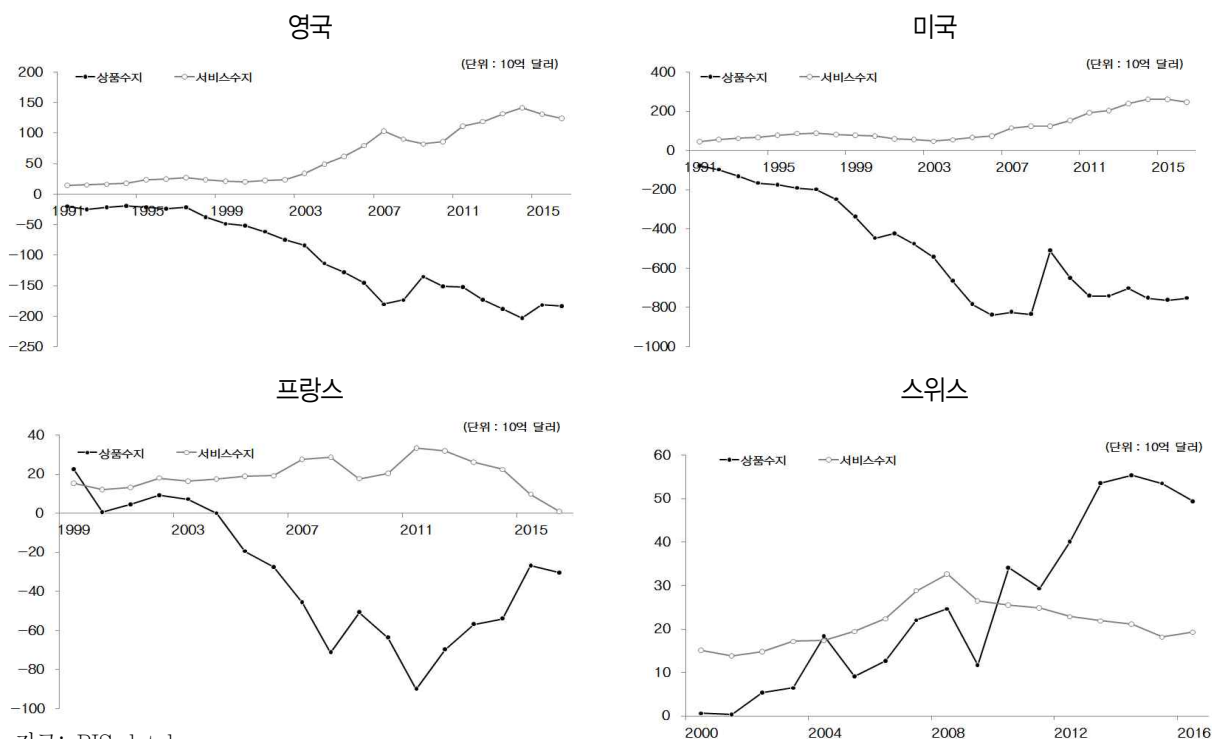
자료: BIS database

〈그림 3〉 독일, 일본, 아일랜드, 핀란드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자료: BIS database

〈그림 4〉 영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자료: BIS database

- 물론 서비스수지와 상품수지가 동시에 흑자 또는 적자를 보이는 국가(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등)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경제규모가 크지 않음
- 이러한 모습은 국제무역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임
 - 비교우위론이란 생산성의 절대 수준이 아닌 상대적인 수준에 의해 자국의 비교우위가 결정된다는 것임
 - 예를 들어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의 절대적 수준이 매우 높으나 상품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 서비스업의 상대적 생산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됨

■ 둘째,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경우 흑자 또는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서비스수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1991년 이후 서비스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국가는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이고,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국가는 없으며, 대부분 흑자기조와 적자기조가 장기화하는 모습임

- 이에 반해 상품수지가 적자와 흑자를 보였던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일본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음
- <그림 3>과 <그림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비스수지의 변동성은 상품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 이는 서비스수지의 경우 상품수지보다 흑(적)자 기조가 바뀌기 매우 쉽지 않다는 점을 의미함

〈표 1〉 OECD 주요국의 서비스추지 추이

서비스수지	국가
적자기조에서 흑자기조로 전환된 국가	아이슬란드, 스웨덴
흑자기조에서 적자기조로 전환된 국가	없음
흑자기조가 지속되는 국가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이스라엘
적자기조가 지속되는 국가	호주, 캐나다, 독일,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칠레

-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 왔으며, 서비스수지 적자 또는 흑자기조가 장기화된다는 주요국 사례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서비스수지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향후 경상수지⁴⁾ 흑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며,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임
- 한국경제연구원(2017)⁵⁾에 따르면, 민간 R&D 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우리나라는 제조업 위주로 성장한 독일(12.4%, 2014년), 일본(12.1%, 2015년)보다도 낮은 8.1%(2015년)에 불과함 **kiri**

4)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의 합임

5) 한국경제연구원(2017), 「서비스산업 R&D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